

보 도 설 명 자 료 (‘11. 11. 9.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주간경향, “MB 해외자원 외교성과 뺑뚱기” 보도에
대한 설명

1. 기사요지 (‘11.11.9. 주간경향)

□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평가 결과 자주개발물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등 정부는 자주개발물 수치를 과대 평가하였음

① 일일 자주개발물량 산정 시 ‘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/365일로 계산하였으나, ‘08년부터 연간 생산량/실조업일수로 산정함에 따라 자주개발물 성과가 과대 평가

② 아울러, 하베스트社 등 해외 M&A사업 성과가 저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□ ‘08년부터 일일 자주개발물량을 연간 생산량/실조업일수*로 산정하여 실제 비상시 확보 가능한 광구별 생산능력의 합으로 변경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

* 실조업일수 : 신규 생산광구 인수, M&A시 생산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잔여일수

○ ‘08년부터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에 따라 생산광구 매입, M&A를 본격 추진하여 연중에 신규 생산량으로 확보되는 사례가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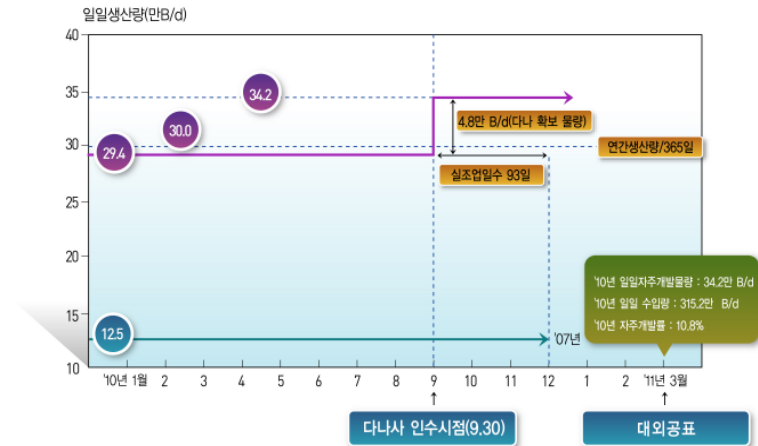
* ‘08년 : Anchor, ‘09년 : Harvest, Savia Peru, Sumbe, ‘10년 : Dana

○ ‘07년까지의 적용 방식(연간생산량/365일)으로 신규 대형광구 확보시 생산개시 이전 일을 생산일수에 포함하는 경우 비상시 확보 가능한 물량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되는 미비점 발생에 따라 자주개발물량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‘08년부터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

* ‘07년까지는 신규 대형광구 매입, M&A사례가 없어 연간(365일), 실조업일수 기준에 따른 자주개발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

○ 다만, 광물분야는 ‘10년까지 M&A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방식을 유지하였으나, 금년부터 M&A사례 발생에 따라 석유·가스 등 실조업일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

< 자주개발물 산정방식 변경 사유 설명 >



‘10년도 자주개발물 대외공표 시점에서 실제 확보가능한 자주개발물량은 34.2만 b/d임에도 불구하고, 연간기준(365일)으로 계산시 자주개발물량이 30만b/d로 과소 산정되어 비상시 통제가능한 물량이 왜곡되는 미비점이 발생

□ 또한, 석유공사 M&A사업에 대한 ‘11년 상반기 평가 결과 모든 자회사들의 매출액, 영업이익 등 재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M&A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* 캐나다 하베스트 : (‘10년 상반기) 매출액 426백만불, 영업이익 43백만불
(‘11년 상반기) 매출액 512백만불, 영업이익 50백만불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김승태 사무관(02-2110-5509)